(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62輯

양산 소주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6. 11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조사지역 및 주변환경 4
1. 양산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4
2. 양산시의 고고·역사적 배경 5

Ⅲ. 역사·고고학 분야의 조사 9
1. 조사지역의 인문·역사분야 9
2. 양산시(조사지역 포함)의 민속 및 지명유래 11
1) 민속 11
2) 지명유래 14
3.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6
1) 주남리요지 16
2) 죽전 유물산포지 16
3) 당촌 유물산포지 16
4) 우불산 고분군 17
5) 우불산 유물산포지 17
6) 우불산성 17
7) 주남고분군 17
8) 편평 유물산포지 18
9) 신불암지 18
10) 사평 유물산포지 18
11) 명곡고분군 18
12) 시명골요지 19
13) 시명골 석조여래입상 19
14) 진등 유물산포지 19
15) 신명 유물산포지 19
16) 솔밭골요지 20
17) 평산리유적 20
4. 조사내용 20
1) 근·현대 분묘군 21
2) 유물산포지 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Ⅳ. 조사단 의견 22

참고문헌 24

도 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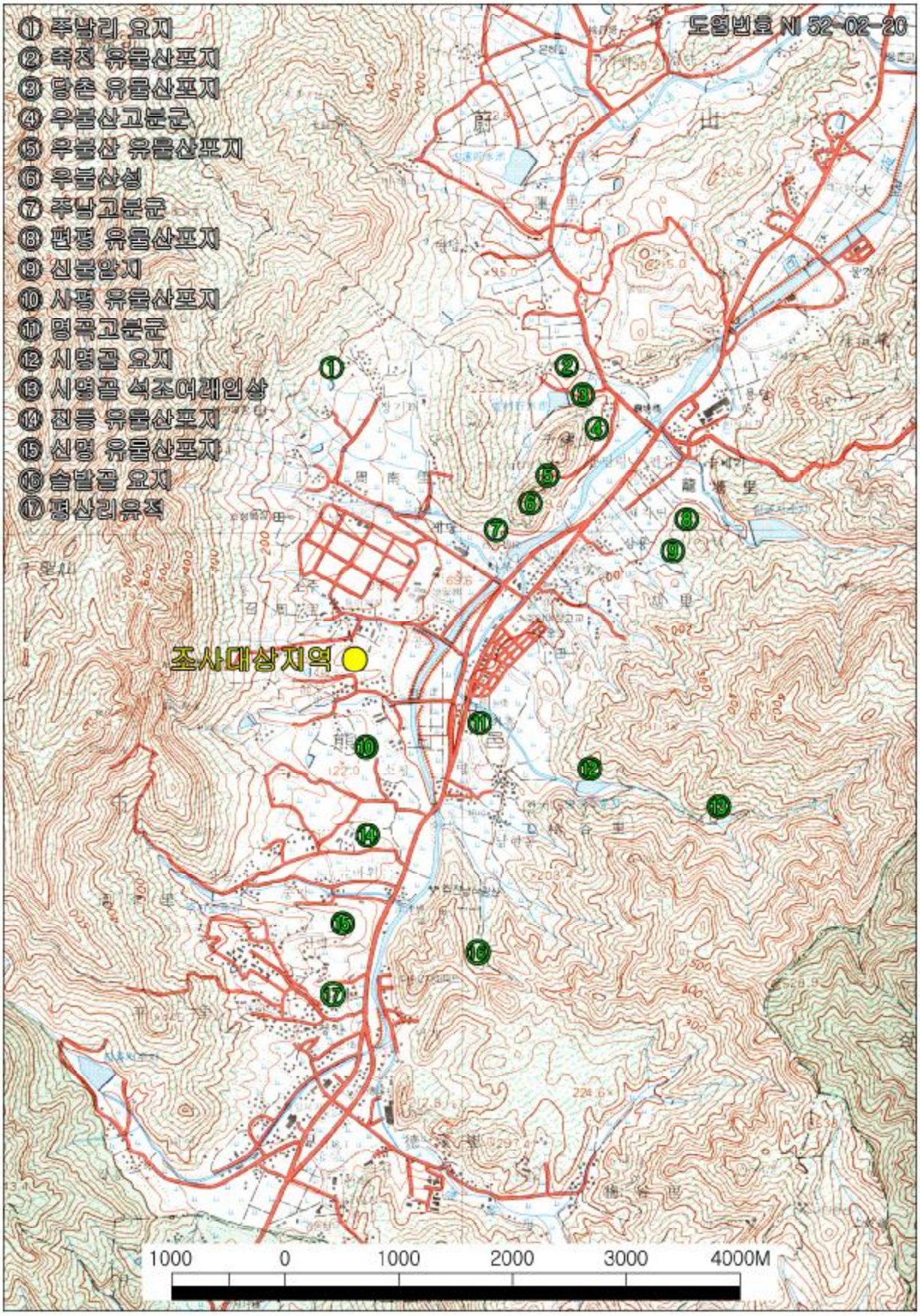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
도면 2. 조사지역 지형도(1/5,000) 2

圖 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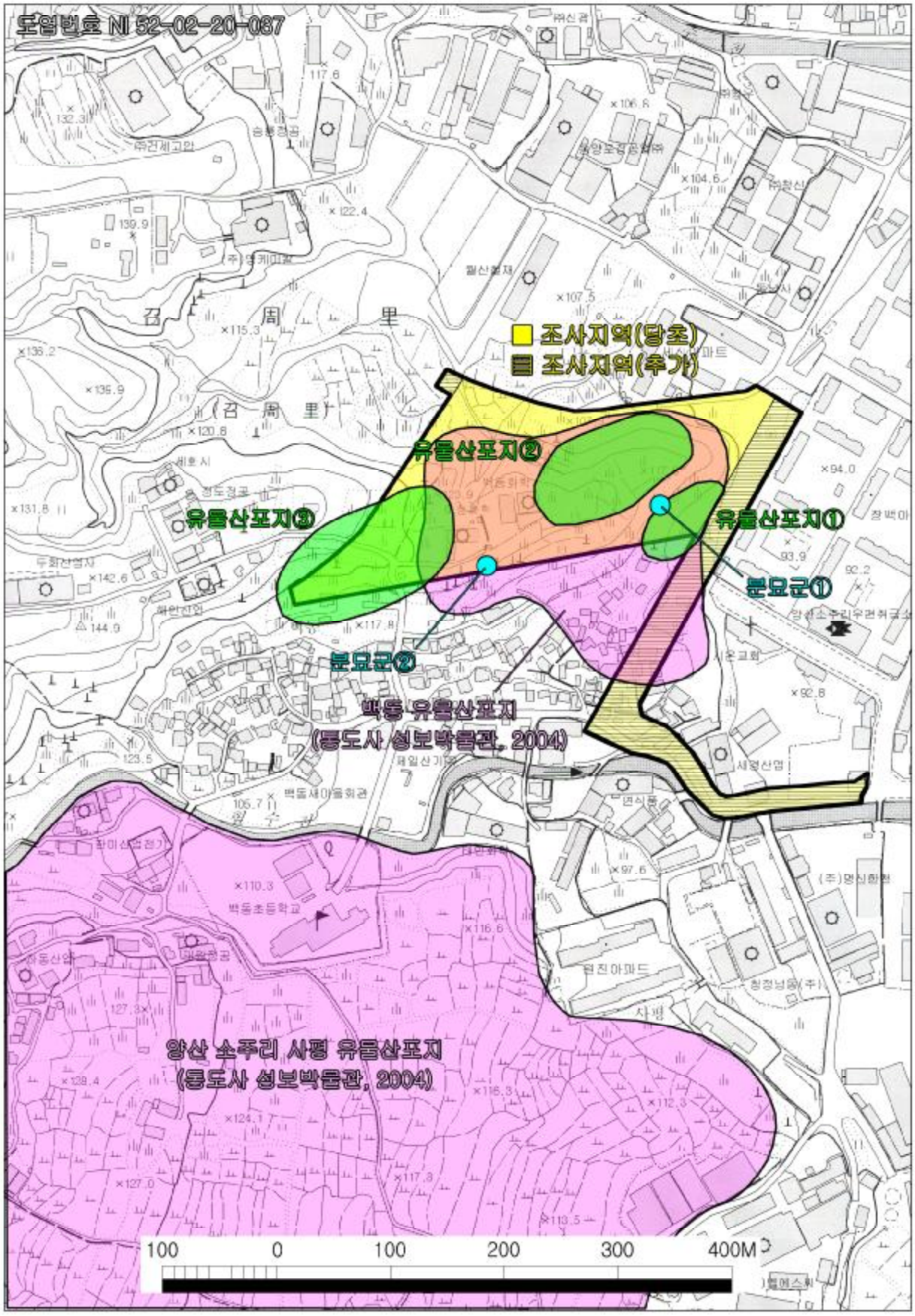
도판 1. 조사지역 위성사진 27
도판 2. 조사지역 전경(서→동) 27
도판 3.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① 전경(남→북) 28
도판 4. 유물산포지① 채집유물 28
도판 5.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② 전경(동→서) 29
도판 6. 유물산포지② 채집유물 29
도판 7.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③ 전경(서→동) 30
도판 8. 유물산포지③ 채집유물 30
도판 9. 울산박씨・전주이씨 합장묘 31
도판 10. 조사지역 정상부 시기미상 분묘 31
도판 11. 추가조사지역 세부 전경(남→북) 32
도판 12. 추가조사지역 세부 전경(북→남) 3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Ⅰ. 조사개요

■ 조사명 : 양산 소주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 조사경위

우리 연구원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 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 및 **373-4**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차-**42,653**㎡(약 **12,903**평) · 추가-**18,775**㎡(약 **5,680**평)

■ 총조사기간

< 1차 : **2006**년 **8**월 **1**일 ~ **2006**년 **8**월 **25**일 **>**

◦ 예비조사 : **7**일

◦ 현장조사 : **3**일

◦ 자료분석 · 정리, 보고서 작성 : **15**일

< 추가 : **2006**년 **11**월 **16**일 ~ **2006**년 **11**월 **30**일 **>**

◦ 현장조사 : **2**일

◦ 자료분석 · 정리, 보고서 작성 : **13**일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 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 조 사 원 : 최희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황은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차)
김건우(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차)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차)
이재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추가)
권선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추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Ⅱ. 조사지역 및 주변환경

1. 양산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양산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 51′~129° 31′**, 북위 **35° 17′~35° 32′**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상 남단은 낙동강과 접하고 있는 동면 가산리(북위 **35° 16′**)이며, 북단은 신불산 아래쪽과 접하고 있는 원동면 선리(북위**35° 31′**)이다. 그리고 동단은 대운산 위쪽과 접하고 있는 웅상읍 용당리(동경 **129° 07′**)이며, 서단은 낙동강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원당면 용당리(동경 **128° 52′**)이다. 인접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북쪽으로 울산광역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김해시와 각각 접하고, 동쪽으로는 울산시 언양면과 부산시 기장군,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해발 **700~900m**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1] 그리고 시의 중앙부를 북동에서 남서로 관통하는 하천인 梁山川에 의하여 동서로 영취산과 천성산 줄기로 나누어진다. 또한 회야강·원동천 등 주요 하천들이 남북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2] 전체면적에 비해 평야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경지율은 **12.7%**, 농업인구는 **9.5%**에 불과하지만, 젖소와 닭 사육의 비율은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높다) 동쪽으로 태백산맥과 서쪽으로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쪽은 경부선철도, 동쪽은 국도 **7**호선과 연결되고 있으며, 양산시의 중앙을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5**호선이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으로의 교통망은 매우 발달하여 부산과 울산광역시를 연결하여 내왕이 매우 용이한 반면,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부터 이러한 양산시의 입지적인 환경은 **2**가지 측면에서 크게 중요시되었다. 첫째,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과 경제적 문물교류를 담당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과 둘째, 이들 교통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대로부터 水路와 陸路의 통행이 동시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양산시의 지질형태는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조륙 및 침식 그리고 화성활동과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慶尙系地層에 속한다. 慶尙累層群은[3] 洛東統을 기저로 하고, 다시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양산시의 경우는 佛國寺統의 상부대동계의 최상부에 있는 여러 종류의 酸性噴出岩을 포함한 지질계통에 속한다. 이로 인해 양산시 지역에서는 첫째, 深成岩의 閃線岩 및 花崗岩, 둘째, 분출암의 石英班岩, 셋째, 脈石으로서의 화강반암과 석영반암 및 硅長

---

1) 동부경남에서는 가장 산지가 많은 內陸山岳地形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통도사성보박물관,『梁山의 歷史와 文化』, **2002.**
3)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 년 전부터 **6**천 **3**백만 년 전까지 계속된 中生代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기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분지를 慶尙盆地라고 부른다.(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1**-총설』, **200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石 등 산성암과 閃綠班岩, 鹽基性岩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鑛床을 이루고 있으며, 화강섬록암의 심성암의 경우는 기장 일대 낙동강구에서 분출되고 있다.[4)]

기후상으로 동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온대계절풍 기후대와 대륙동안 기후대에 속하는데, 특히 해안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양성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비교적 따뜻한 편에 속하는데, 해안쪽 보다는 내륙쪽의 한서 차가 큰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3~14**℃ 정도이며, 최저기온은 겨울이 영하 **16.7**℃로 가장 낮았으며,**(1936**년도**)** 최고기온은 여름이 **38.6**℃로 가장 높았다.**(1983**년도**)**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 다우지역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1,796**㎜로 비교적 많은 편으로, 강수는 계절적으로 하계집중형 계절풍형이다. 주로 **6~8**월에 연강수량의 **50~60%**가 넘게 내리고 있으며, 반대로 **12~2**월에는 연강수량의 **5.8%**에 불과하며, 강설일 또한 연간 **5**일 미만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름철이면 다량의 습기를 포함한 남동계절풍과 양자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동성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남해안 일대에 이르러 이곳의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많은 양의 비를 일시에 내리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通度寺를 비롯한 많은 역사적 사찰과 유물들이 산재한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또한 **1996**년 **3**월 **1**일 도농통합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市로 승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접한 울산·동래·김해 등지와 행정구역 편입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인접한 대도시들의 기능분담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산업단지의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독립된 도시형태를 갖추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역사의 도시이자 교통·산업의 요지로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상 시청소재지인 남부동을 비롯한 물금읍·웅상읍, 동면·상북면·원동면·하북면, 강서동·중앙동·삼성동 등 '**2**邑 **4**面 **3**洞'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484.16**㎢로 경상남도 전체 면적 중 약 **4.6%**에 해당한다. 총인구와 가구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6**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가구 수는 **77,556**호에 인구는 **222,299**명이다.**(2005**년 **12**월 말 통계자료 기준**)**[5)]

2. 양산시의 고고·역사적 배경

양산시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선사시대의 문화형성은 대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 즉 지형과 기후 등 자연적인 요소가 인간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산지역은 수렵과 채집, 나아가 농경과 어로에 매우 적합한 지역 중 하나였으며, 지리적 특성상 수로와 육로를 통해 내륙과 바다로

4) 梁山郡誌編纂委員會 『梁山郡誌』, 1986.
5)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시군현황 통계자료>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동시에 진출이 용이한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요충지임과 동시에 경제적 문물교류를 담당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잇점으로 볼 때, 최소한 신석기시대부터는 사람들이 생활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융기문토기가 신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점이나,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에 이르는 양산조개더미 유적을 비롯하여 양산천의 골짜기와 동해안의 기장 지역에 선사시대의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쪽으로 접해 있는 울산광역시의 선사시대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석기인들의 활동이 북한지역의 함경북도 웅기지역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이곳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문화의 전파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6] 그리고 양산시의 선사·고고 문화유적들은 주로 양산천과 회야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 주변의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야의 지형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일찍부터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사시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공동체들이 청동기시대의 정치적 집단으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삼한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여 초기 國家들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이 지역에 고대국가가 성립되는 삼한시대까지의 활동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이 시기의 정치권력 존재를 간접적으로 엿 볼 수 있는 자료로서 3세기 중반 경 한반도 남부지방의 여러 소국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국측 사료인『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 보면, 慶尙道 南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 소국 중 하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7] 인접한 기장지역이 '萇山國'(다른 명칭으로는 '萊山') 또는 '居漆山國'으로, 밀양지역이 '彌離彌凍國'으로 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산지역에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소규모의 정치권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편 고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신라와 가야의 문화·경제·군사 교통의 요충지로서, 때로는 교류의 장으로서 또 때로는 치열한 접전장으로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통일신라와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三國史記』에 의하면, 이미 신라초기인 脫解尼師今代에 낙동강 하구지역인 黃山津 어구에서 가야군과 신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8] 이후 조선중기 宣祖 25년(1592)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6·25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격전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양산시와 관련된 본격적인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난다. 文獻上에서 찾아 볼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7)『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不斯國…(중략)…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하략).

8)『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二十一年條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三國史記』卷45 朴堤上傳이다. 여기에는 "박제상이 신라 訥祇王 2년(417), 歃良州干에 임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9] 그리고 文武王 5년(665)에 기존의 良州를 上州와 下州로 나누고 歃良州를 신설하였으며, 동왕 13년(673)에는 이곳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다.[10] 이 밖에도 여러 기록이 있는데, 이들 중 특히 古代에 있어 왕이 직접 순행하여 백성들을 둘러보고 慰撫하였다는 사실,[11] 또 왕이 가야를 치기 위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할[親征][12] 정도의 지역이었으며, 나아가 성을 쌓아[築城] 방어하게 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양산이 지닌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에 실시되었던 '9州 5小京'의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지방조직이 정비되면서, 명칭을 다시 '良州'로 하고, '1州, 1小京, 12郡 34縣'을 관할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13] 즉 지방행정과 군대가 주둔하였던 9州와 특수행정구역인 5小京 중의 한 군데로 하였으며, 여기에 12郡 34縣을 소속시켜 관할하며 지방행정을 담당케 했다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일대의 행정, 군사, 그리고 경제의 구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했음을 뜻한다.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양산시의 행정, 명칭변화 및 陞降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선초기 문헌인『高麗史』를 비롯한『世宗實錄』<地理志>에서부터 조선후기의『輿地圖書』나『慶尙道邑誌』에 이르기까지 양산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은 물론, 과거의 沿革·규모·官員·郡名·風俗·城郭 및 烽燧(關防시설)·佛舍·學校·祠堂 등 행정구역의 변천과정과 전반적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양산시 전반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에 따른 행정개편 과정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成宗 2년, 983)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豪族勢力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 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이

---

9)『三國史記』 卷四十五 <列傳>五 朴堤上傳.
(상략)……堤上仕爲歃良州干.
10)『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七 文武王 十三年 참조.
11)『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味鄒尼師今 三年.
味鄒尼師今 三年 三月 幸黃山 問高年及貧不能自存者 賑恤之.
12)『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二十一年.
脫解尼師今 二十一年 秋八月 阿湌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 口獲一千餘級.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祇摩尼師今 四年.
祇摩尼師今 四年 秋七月 親征加耶師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以得之.
13)『三國史記』 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六年條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조선초기 또한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 과정에서 경상도 지방행정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지금의 명칭인 '梁山'이 나타난다.

먼저 高麗 太祖 **23**년**(940)**에 良州라는 명칭이 '梁州'로 개칭되어 고려시대 전반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顯宗 **9**년**(1018)** 防禦使[14]를 두어 이 지역을 관할하고 방어하게 했다는 점이나 官을 통합했다가 백성들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다시 고을을 부활시킨 점 등은 여전히 그 입지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초기에 지금의 '梁山'이라는 지명이 생겨난다. 太祖代의 개국공신이었던 李全生이 벼슬 후에 '梁山府院君'으로 봉해진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후 太宗 **13**년**(1413)** 전국적인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양주를 '梁山郡'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때부터 양산이라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외 역사적으로 사용된 양산의 명칭을 살펴보면, '歃良州·良州·梁州·宜春·順定'이다. 한편 전통지리서에 나타나는 양산시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관할지역이 여타의 지역에서 나타는 '面' 단위가 아니라 '坊'이라는 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칭 변화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승된 이름**(2**개소**)** **:** 상북면·하북면

○ 사라진 이름**(5**개소**)** **:**

읍내방**(**읍내면**)**·상동방·하동방·상서방**(**상서면**)**·하서방**(**하서면**)**

○ 새로 생겨 지속되는 이름**(5**개소[15]**)** **:**

양산면**/**읍**/**시·동면·물금면**/**읍·원동면·웅상면**/**읍

한편 조선시대에는 낙동강이 日本**[**倭**]**과의 무역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 宣祖朝**(25**년**, 1592)**에 발발한 壬辰倭亂**(1592**년**~1599**년**)** 때는 왜군이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지로서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한 지역이었다.『宣祖實錄』의 여러 군데서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郡守 趙英圭**(?~1592**년**)**가 동래성에 들어가 동래부사 宋象賢과 함께 순절한 사실**(**宣祖 **25**년**, 1592)**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에는 피폐해지고 郡勢가 매우 쇠락하여 한때 동래부에 폐합되었다가,**(**먼저 宣祖 **32**년**(1599)**에 기장현이 동래부에 폐합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同王 **36**년**(1603)**에 다시 고을**[**郡**]**이 복원되었으며, 光海君 **9**년**(1617)**에는 기장현도 다시 복원되었다.[16]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잘 반영하듯이 지금까지도 양산시 곳곳에 三國時代의 여러 성들을 비롯하여 朝鮮時代 城郭과 倭城, 烽燧 유적지가 여러 군데 남아 있다.[17]

---

14) 고려시대 지방관직의 하나로 **5**品 이상의 병마직을 가리키며, 知軍事와 품계가 같다.
1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16)『宣祖實錄』·『光海君日記』참조.
17) 三國時代의 성으로는 북부동산성·신기동산성·양산읍성·우불산성·박지리토성·순지리토성·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오늘날 양산시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으니, 조선말기인 高宗 **32**년 **(1895)** '**23**府制'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8**面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듬해인 同王 **33**년**(1896)**에 다시 '**13**道制'의 실시에 따라 慶尙南道로 소속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의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읍내, 동면, 상서, 하서, 상북, 하북, 웅상의 **7**面 **58**里로 개편·관할하게 된다. 그리고 해방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몇 가지 행정변화를 거쳤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변화는 **1979**년 양산면이 양산읍으로 승격되면서 '**1**邑 **12**面 **130**里 **249** 行政里洞'으로 개편되었다는 것과 **1996**년 **3**월 **1**일 도농통합시로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고, 동시에 물금면이 물금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큰 변화 및 중요한 사실을 간추려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근현대 양산시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 및 변화

	연 도	행정개편(변화) 내용	비 고
근 대	1897	전국을 13도로 할 때, 양산군을 8면으로 하였다.	高宗 34년
	1906	구포면을 동래군으로 대저면을 김해군으로 이관. 외남면·웅상면을 울산군에 편입.	
	1914	기장군을 동래군에 통합.	
	1919	양산 3·1만세 운동이 있었다.	3월 27일
현 대	1970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고리원자력 발전소 준공.	
	1973	동래군을 흡수·합병.	
	1979	양산면이 양산읍으로 승격.	
	1995	동부 5개 읍, 면이 부산광역시로 편입.	
	1996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었다.	도농통합시

Ⅲ.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1. 조사지역의 인문·역사분야

지금의 양산시는 **1996**년 양산군이 도농통합시로 승격된 후, '**2**邑 **4**面'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 중 금번 조사는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단조산성·마고산성이 있으며, 朝鮮時代의 성곽유적으로는 삼호리 성지·증산리왜성·호포왜성이 있고, 동래 鷄鳴山과 언양 夫老山을 연결하는 直烽이 있다. 이 봉수대는 복원되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군사유적 시설물로 남아있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42,653**㎡**(**약 **12,903**여 평**, 2006**년 **8**월 현재**)**이다. 이 지역의 인문·자연·역사적 환경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熊上邑은 지리적으로 양산시의 동북부에 해당한다. 동북쪽으로 울산광역시와 접하고 동남쪽으로 부산광역시와 접하며, 서북쪽으로 하북면, 상북면과 접하고, 서남쪽으로 동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상으로 서쪽에는 남북으로 뻗어 내린 천성산**(922m)**의 지맥들이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대운산**(742m)**에서 뻗어 내린 지맥들이 천불산 등을 형성하고 있다. 하천은 이들 산지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두 북동쪽으로 흘러 회야천으로 합류하여 현재 울산광역시의 회야댐에 저수되고 있다. 기후조건은 대한난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편에 해당하며, 한서의 차가 크지 않아 사람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절한 환경에 속한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지리적 입지를 바탕으로 남쪽의 부산광역시와 북쪽의 울산광역시를 국도 **7**호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농, 공업을 위주로 하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에 따른 공업단지 및 대단위 주거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웅상읍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로는 양산 미타암석아미타불입상**(**보물 제**998**호, 소주리 산**171**번지**)**을 비롯하여 천불산신사**(**도문화재자료 제**187**호, 용당리 **1134)**, 김려택 정려각, 신불암지, 주남리 도요지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읍소재지인 삼호리를 비롯한 **47**개 행정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25,981**가구에 인구는 **74,117**명이다.**(2006**년 현재 통계현황**)**[18]

역사적으로 볼 때, 웅상읍 지역은 오랫동안 울산광역시**(**울산군**)**의 **12**개 동리를 관할하는 하부지방행정이었다가 근대**(1906**년**)**에 이르러 양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19]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지속적으로 터를 잡고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고대 삼한시대 '于尸山國'이 있었던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신라에 편입되어서는 '于火縣'으로 개칭되었다가,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 '**9**州 **5**小京'의 지방행정이 정비되자 그 명칭이 '虞風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초기인 太祖 **13**년**(931)**에 후삼국시대 太祖를 도와 큰 공을 세운 朴允熊의 貫鄕이라 하여, 당시 臨關郡의 東津縣과 東安郡의 虞風縣을 河曲縣과 합쳐 '興禮府'**(**禮는 '麗' 자로도 쓴다**)**로 승격했다가, 成宗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恭化縣'으로 강등되었으며, 顯宗 **9**년**(1018)**에 공화현에서 다시 '蔚州'로 승격, 개칭되면서 이 지역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太祖 **6**년**(1397)** 이곳에 鎭을 두었으며, 太宗 **13**년**(1413)**에 실시한 전국의 행정구역 정비 때에도 '울산군'의 관할이었으며, 이후 별다른 행정구역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조선후기 正祖 **10**년**(1786)** '울산군 熊村面'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선후기의 사료인『輿地圖書』및『慶尙道邑誌』**<**蔚山府邑誌**>**에 의하면, 당시 熊村面은 "관문으로부터 **70**리 쯤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20]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말기

---

18) <양산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인구통계자료> 참조.

19) 웅상읍을 포함한 양산시 전체 面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과 관련해서는『경상남도 연구』**(**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표**>(p.42)**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인 高宗 **33**년**(1896)** 명칭을 '울산군 熊上面'으로 개칭하고 당시 **21**坊을 관할하였으며, 高宗 **43**년**(1906)** 비로소 지금의 양산시에 편입되어 '양산군 웅상면'으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실시로 인한 행정구역개편 때, **9**개의 법정리로 통폐합 되었는데, 이 때 개편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嶠南誌』<梁山郡> 面洞里條에 의하면, 당시 웅상면에 속한 召周里와 平山里를 비롯한 **9**개 里의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다.[21] 이러한 행정구역 체계는 해방이 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1991**년 웅상면에서 '웅상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양산시(조사지역 포함)의 민속 및 지명유래

1) 민속

민속은 각 지역의 민간신앙·세시풍속·전통놀이·구비전승·제례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전해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다양한 민속행위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의식이나 특성, 생활양식 등을 내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 현재까지 각 지역에 전승되는 行爲傳承만도 **100**여 종 이상이다.

양산시 역시 다양한 민속행위나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니,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과 사찰(통도사)과 관련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와 의식과 놀이, 전통춤, 전통공예기술,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2]

양산지역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먼저 <伽倻津 龍神祭>(도무형문화재 제**19**호,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를 들 수 있다. 연원이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국가제례의식의 하나였던 '가야진사 제례'를 바탕으로 형성된 민속놀이로 오늘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놀이의 구성은 먼저 마을과 가야진사 주위를 돌면서 칙사를 맞을 준비를 갖추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며 부정을 막는 부정굿을 벌린 다음 칙사를 영접한다.(지신풀이) 칙사를 영접한 후 재단으로 돌아 와 재단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강신제(신 내림굿)를 치르고 집례관이 주관하여 용신제례를 올린다. 제를 마친 후 용이 있다는 용소로 출발하는데, 이에 앞서 부정을 없애는 의미에서 송막에 불을 지르고

---

20)『輿地圖書』·『慶尙道邑誌』<蔚山府邑誌> 坊里條 참조.

21)『嶠南誌』卷之四十六 <梁山郡> 面洞里條.
(상략)……熊上面 三湖里 梅谷里 德溪里 平山里 榆谷里 周津里 召周里 周南里 龍塘里……(하략).

22) 양산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하다. 그러므로『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양산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신발을 벗어 태우기도 한다. 그리고 용소로 향할 때 뱃머리에 제물로 삼을 산 멧돼지를 싣고 가서는 술을 부어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 후, 용소를 한 바퀴 돌고 제단에서 제의가 마쳤음을 고하고, 칙사가 관복을 벗는 것으로 의식이 마무리 된다. 다음으로 <양산 망시곱매기놀이>는 연원은 알 수 없으나, 농경문화가 정착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산지역에서는 논매기를 '아시매기', '중간매기', '망시매기'로 구분하는데, 마지막인 '망시매기' 때 행하는 놀이이다. 농사 장원을 선발하거나 머슴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놀이로 짜임새는 논매기를 마친 머슴들로 하여금 피로를 풀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놀도록 하였는데, 좌상머슴을 중심으로 놀이가 벌어지면 각 주인들은 음식을 내어 놓는다.

조사지역인 웅상읍에는 <웅상농청 장원놀이>(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웅상읍 명곡리 명석마을)가 행해지고 있다. 놀이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논매기놀이를 '농요화'한 것으로 아주 오래된 전통놀이다. 짜임새는 모두 3마당으로 구성되어 연희된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놀이로 '망시논매기'를 농요화한 것이 특이하며, 민속놀이와 농요가 곁들여져 각 마당마다 놀이를 희극적으로 엮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의 구성은 영각을 불며 선창자와 깃발이 입장하고, 그 뒤로 풍물꾼과 아낙네들이 음식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뒤따른다. 그리고 좌수(행상)이 풍물과 노래를 멈추게 하고 한해 농사의 품평회를 하며, 품평회가 끝나면 장원을 한 주인이 머슴을 오색으로 치장한 황소에 태우고 들어와 함께 천지신명께 고유제를 올린 다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뒷풀이를 하며 마무리 한다.

양산지역에서는 또한 전통춤이 다수 전승되고 있다. 첫째, 통도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양산(사찰)학춤)>은 주로 영남지방의 사찰 및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춤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통도사에서 의례행사로 승무와 함께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춤의 특징은 갓과 도포차림의 선비복장으로 학의 우아한 동태를 민속무로 표현 한점과 춤사위가 토속적이며 경상도의 덧배기춤의 멋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갈한 조선 양반호걸들의 모습을 춤으로 재현한 <양반춤>이다. 조선 양반계층을 표현하고 있는 갓·망건·도포차림에 손에 장죽과 합죽선을 들어 의젓하고 깨끗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춤사위 또한 꾸밈이 없고 담백하면서 의기가 넘치고 절도가 있어 섬세한 선율 하나까지도 절제와 고귀함이 배여 있는 춤이다. 이 춤의 특징은 의상자체가 전형적인 양반 모습이라는 점과 춤사위가 양반의 풍모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독무나 군무 모두 가능하다는 점, 양반을 재현하는 민속적 가치가 가미되었다는 점, 다양한 표현성과 동적인 춤사위가 대표적인 남성춤이라는 점이다. 셋째, 옛날부터 궁중과 서민들의 가정에서 나례의식 때 추던 춤인 <연등나례춤>(일명 '교방살풀이춤')이다. 나례의식이란, 음력 섣달 그믐날에 마귀와 사신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으로 宋나라에서 들어와 우리 민족의 원시신앙과 융화되어 조선말기까지 성행한 우리 민족 전통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춤이다. 넷째, 고려 전통불교 예술의 소산으로 정통 불교의식무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중 하나인 <煙燈바라춤>이다. 양산의 연등바라춤의 특징은 통도사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순수한 불교의식의 춤으로 여타 지역의 바라춤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은 종교적 예술성을 돋보이게 하며, 국태민안을 위한 경축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다른 춤과는 달리 민속성이 가미 되지 않고 예불의 사실적 유래와 내용, 불교정신을 표현하는 춤사위와 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전통공예기술로 <丹淸匠>이 전승되고 있다. 단청은 목조건물에 채색하여 무늬를 그리는 건축용어로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한층 더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채색 도장에 그치지 않고 회화(탱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능을 행하고 있다. 또한 여타 지역처럼 땅따먹기, 제기차기, 꽃놀이, 건치치기(나무로 못치기), 팽이(공개)치기 등의 민속놀이가 전승되고 있으며, 문화행사로는 충성의 뜻을 기리는 <삽량문화제>를 비롯하여 통도사의 창건자인 자장율사의 제사일(음력 9월 9일)을 전후하여 벌어지는 <개산대제>, 매년 4월 통도사 서운암에서 펼쳐지는 <들꽃축제> 등이 있다.

동제는 '洞虞祭'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족 고유의 전승의식이다. 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마을의 전체주민이 함께 참례하는 합동의식이다. 양산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를 살펴보면, 木神祭는 마을의 老巨樹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인데, 확실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옛날 樹木崇拜의 사상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立石祭는 보통 동구 앞에 큰 돌을 세워 놓고 그 돌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격상시킨 다음에 이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城隍堂祭는 마을 근처에 특별한 집을 지어 마련한 곳도 있으나, 마을과 마을 사이 고갯길의 고목 밑에 작은 돌을 모아서 성황당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마지막으로 長丞祭는 나무 또는 돌로 만든 것인데, 사원과 읍촌의 입구 또는 길을 안내하는 경계지점에 주로 세워졌으며, 보통 정월 보름에 행하여졌던 풍습이다. 이들 동제 중 양산지역에서는 당산신을 모시는 당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祭日도 대부분 上元日이 다. 이러한 동제들은 아직까지 마을 전체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여겨 매우 신성시되고 있으며, 엄격하고 성대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당 역시 매우 신성시하여 제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양산일대에는 많은 설화와 전설,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설화나 전설의 경우, 통도사나 가야진사 등의 유래를 밝힌 緣起傳說을 비롯하여 원효나 의상, 자장율사와 같은 인물, 그리고 장소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원사에 있는 <구포복설 용연리 세비석의 유래>를 비롯하여 통도사 대웅전 뒤편에 있는 <용혈암과 구룡신지의 유래>, <산막리 유래>(산막동), <효성천>, <화암산>, <통도사의 사리탑>, <자장율사와 통도사>, <오의정>, <삼수리오 삼장사>, <포천산의 다섯비구>, 최제우와 관련된 <적미굴과 동학설화>, 원동면의 <가야진사>, <박초이야기>, <신동대굴>, <개화바위> 등 많은 전설과 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조사지역인 웅상읍에도 천성산과 관련된 <원효암>, <왜시등>(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상읍 삼호리 삼려마을)이 전해지고 있다. 민요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동요·유상요·경세요·의식요·애환요 등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다양하나, 주축을 이루는 것은 <모심기노래>를 중심으로 한 農謠와 <멸치잡이>와 관련된 漁撈謠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는 <모내기>와 관련된 많은 노래와 <밭매기 노래>, <베짜는 노래>, <멸치잡이 후릿노래>('놓는 소리', '망께소리', '가래소리'로 구분됨) 등의 노동요를 비롯한 <성주 지신밟기>, <대문간 지신밝기>, <상여노래>, <베틀노래> 등의 의식요, 그리고 <三將帥民謠> 등이 전승되고 있다.

2) 지명유래[23]

조사지역인 召周里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시의 柏洞, 召周, 新基(또는 召南)마을을 병합하여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과 관련된 지명을 살펴보면, 이곳의 지명인 '召周'마을이 있다. 원래는 소남마을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윗소주, 중소주, 옻밭골'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소남리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인 '召中'마을을 일컫는다. '召南'은 소주마을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는 '新基'마을이었으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당시 양산, 신기마을 전체와 소남마을 일부가 유실되자 마을이름을 바꾸었다. 이곳에는 수령 약 **300**여 년 된 높이 약 **10m**, 둘레 약 **7m**에 달하는 마을수호목인 당상나무(소나무)가 있다. '백동'은 소주마을 남서쪽에 위치하며, 소남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며, 다른 명칭으로 '百梧'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백홈'마을로도 전하는데, 이와 관련된 전설을 살펴보면, 약 **500**여 년 전 白氏들이 모래밭에 들[畓]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위해 잣나무로 만든 홈 약 **100**여 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했다고 하여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고 전한다. '상보실'은 소중마을 위쪽에 위치한 마을을 가리키며, '옻밭-골'은 백동마을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이곳에 옻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며, 다른 명칭으로 '漆田谷'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沙坪'마을은 원래 백동마을 앞에 있는 모랫들 이었으나, 최근에 백동마을에서 분동되었으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흥'마을도 **1962**년 소주마을에서 분동 되였다.

이 외 산·고개·골짜기·바위·논·들을 비롯한 기타 전승되는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과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백동마을 뒤쪽에 있는 '딧동산 망딩이'와 박영골 위쪽에 있는 '박영골-만딩이'가 있다. 고개, 등성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가매바위 남쪽에 있는 '가매-등'을 비롯하여 둘넘들 동쪽에 있는 '벌맷-등'이 있으며, '밀밭-재'는 안골 서북쪽 천성산에 있는 고개로 하북면 용연리로 넘어간다. 골짜기로는 물골 서북쪽에 '금숫-골'이 있는데,(법수암 남쪽 위) 이곳에는 동굴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못의 물빛이 금빛이라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비섯-골'은 백동

---

23) 조사지역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9**-경남편Ⅱ』(한글학회, **2000**) 및 <양산시청 홈페이지 웅상면 마을지명> 등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참고)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른 명칭으로 '血淵谷'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높이 약 **30m**에 달하는 '비섯골-폭포(일명 血水龍瀑)'가 미타암터 아래에 있으며,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이 沼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를 '비-쏘(또는 피쏘)', '血淵'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비쏘 옆 바위에는 붉은 자국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이 沼에서 승천하던 용이 흘린 핏자국이라고 한다. '안-골'은 백동마을 "서쪽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또 안골 서쪽으로 '감나뭇-골'이 있는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지명으로 이곳에는 '감나뭇-보'도 있다. '싱방-골'은 소중마을 북쪽에 있으며, 옛날에 "승방이 있었던 자리"라고 전하며, '짝밧-골'은 진등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이곳에는 두 개의 바위가 짝지어 있다. 이 밖에 백동마을 북쪽으로 '백영-골'과 '버드나뭇-골'이, 피소골 남쪽으로는 '鳴馬谷(맹망골)'이 적수암 아래에는 '뿔당-골'로 불리는 골짜기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바위와 연관된 지명으로는 싱방골 남쪽에 '가매방우'가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가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며, 몰골에 있는 '삐둘기-방우'는 이곳에 "비둘기 집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고, 몰골 남쪽으로 크고 작은 바위 세 개가 마치 "형제처럼 나란히 있다"고 하여 '삼형제-방우'로 불리는 바위가 있다. '걸뱅이 잔치-방우'는 삐들기방우 서쪽에 위치한 바위로 이곳에는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옛날 화적들이 이곳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전한다. '차-방우'는 소중마을 북쪽에 있으며, 그 형상이 마치 "차처럼 생겼다"하여 붙은 명칭이며, '농바위'는 참시나무징이 남쪽에 있는 바위로 그 형상이 "농처럼 생겼다"하여 붙은 명칭이다. 이 밖에 '궁글바위'는 은수대에 밑에 있는 바위로 "세 개가 비탈에 줄지어 있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붙은 명칭이며, '내리석 바위'는 농바위 서쪽에 비스듬히 는 바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논·들 기타 전승되는 지명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동마을 남쪽으로 '노란장수'라는 논이 있으며, 이 논의 남쪽에 '달피-논'이, 그리고 달피논 동쪽으로 모양이 좁고 긴 '솔때-배미'라는 논이 있다. '담울-배미'는 웃밭골 앞에 있는 논으로 명칭의 유래는 "돌다무래기(돌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이 담울배미 남쪽으로 흉년에 메주와 바꾸었다고 전하는 '매주-배미'라는 논이 있고, 모랫들 남쪽에는 옛날 미타암에 딸렸다고 전하는 '절-논'이 있다. 그리고 들로는 '대밭-들'이 소주마을 북쪽에 있는데, "대밭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었다. 소남마을 앞쪽에 '大坪-들'이, 마을 서쪽에는 '마당머릿들'이 각각 있으며, 소중 마을 서쪽 마루에는 '말랑-들'이 있다. 말랑들 위쪽으로 보리가 잘 자란다고 하여 '보리밭들'로 불리는 들이 있으며, 이 위쪽으로 '집건넷-들'이, 다시 집건넷들 위쪽으로 '울불-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둘 넘어들'은 삼반냇들의 동쪽 둑 넘어 있는 들로 지금의 세신아파트 동남쪽에 해당된다.

기타 '다랫-보'는 소주마을 남쪽에 있는 洑를, '둘넘어보'는 둘 넘어들에 있는 洑를, '딱밭보'는 집앞보 밑에 있는 보를 각각 가리키는데, 딱밭보는 "딱나무밭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그리고 '갓밑 보'는 딱밭보 아래에 있는 보로 갓-밑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회야천에 인접되어 있다. '가매-소'는 백동마을 서쪽에 있는 沼로 이 아래로 '폭포-쑤'라는 沼와 폭포가 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구시(구유)처럼 생겼다"하여 붙은 '구시-쏘'가 있다. 버등[24]으로는 소중마을 북쪽에 "숫돌이 났다"고 전하는 '싯돌빼기-뻐등'과 소중마을 서쪽에 "풀[草]이 좋았다"고 하여 불리는 '초정-뻐등', 그리고 소중마을 한가운데 '참새미안-뻐등'이 있다.(참새미 안쪽에 해당한다) 기타 삼형제 방우의 서쪽(원적암 남쪽)에는 그 모양이 마치 "불은 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명칭인 '물은밥-들경[25]'이 있으며, 또 이것의 서쪽으로 '큰 들경'이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명들이 전승되고 있다.

3.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주남리요지(周南里窯址)[26]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 **45**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가마터로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기점'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천성산 자락의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설상대지에 입지하며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다. 주변 논에 물을 대는 상보못의 북편에 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릉의 단면은 절개된 상태이다. 유물은 분청사기편, 회청자편, 백자편이 채집되었으며 접시, 사발등이 주종을 이루는 기형인 것으로 보아 자기 가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2) 죽전 유물산포지(竹田 遺物散布地)[2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118~120**번지 일원의 울산시와 경계를 이루는 죽전마을의 동쪽 구릉상에 위치한다. 현재 유적 내부는 택지개발로 절반 이상이 파괴된 상태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로 추정되는 유구가 **1**기 확인되었다.

3) 당촌 유물산포지(堂村 遺物散布地)[28]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907-1**번지 일원의 계단식 경작지, 과수원, 임야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이다.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청자편, 조선시대의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다양한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걸친 생활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

24) 높고 평평하며 나무가 없고 풀만 자란 거친 들[野]을 말한다.
25) 험한 바위나 돌 등이 삐죽삐죽 튀어 나온 곳을 말한다.
26)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27)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28)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4) 우불산 고분군(于弗山古墳群)[29]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80번지 일원의 우불산에서 남동으로 이어지는 3부 능선상에 위치한다. 유적 내부는 공동묘지 조성과 도굴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며 일부 노출된 유구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의 석곽묘로 추정된다. 도굴갱과 현대 분묘 주위에서 사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과 고배편, 장경호편과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유적의 입지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상부에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우불산 유물산포지(于弗山 遺物散布地)[30]

양산시 웅상읍 용담리 용당리 산 95-1번지 일원의 우불산 북봉 남측사면에 위치한다. 유물은 납석 채석을 위해 개설된 소로 주변에서 단경호로 추정되는 경질토기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었다. 유물의 성격이나 입지로 볼 때 于弗山城과 연관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며 지근거리에 우불산 고분군이 위치한다.

6) 우불산성(于弗山城)[31]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2-3~6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유적은 남과 북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우불산의 북봉 정상부 외곽과 남동쪽의 곡부로 이루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축조되었다. 성내의 지형은 정상부는 평탄한 반월형의 대지이고, 그 외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성벽은 모두 붕괴되어 원상을 유지하는 부분은 없으며 북측 성벽은 납석 채취로 인하여 성벽의 기저부까지 훼손된 상태이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었지만 잔존 상태로 보아 일정 단위를 이룬 체성의 규모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성의 구축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인근의 할석들이며 부분적으로는 냇돌이 포함되어 있다.

7) 주남 고분군(周南古墳群)[32]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 91~93번지 일원의 우불산 남쪽의 돌출된 구릉 상에 위치한다. 현재 유적 내부는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으로 구성된 임야이고 도굴과 현대 분묘의 조성으로 유적의 상당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유구의 대부분은 수혈식 석

---

29)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30)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31)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32) 東亞大學校博物館, 『伽倻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86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곽묘이며 부분적으로 소형 봉토분도 확인된다. 도굴로 인해 노출된 석곽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유적 전반에 걸쳐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유물은 신라토기의 전 기종이 망라되어 있으며 **5~6**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8) 편평 유물산포지**(**片坪 遺物散布地**)**[33]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71-1**번지 일원의 구릉말단부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이다. 유적 내부는 구릉의 골안에 형성된 대지로 계단식 경작지와 대나무 숲**,** 근대의 분묘군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소로와 경작지의 표토에서 발견되는데**,** 파상문이 시문된 삼국시대의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녹청자편과 조선시대의 분청자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다양한 유물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9) 신불암지**(**新佛庵址**)**[34]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74-1**번지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 농장과 대나무 숲**,** 계단식 밭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농장의 축대와 경작지의 표토에서 격자문**,** 집선문**,** 파상문 등이 시문된 기와편과 전돌편이 채집되었다. 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고려시대 사지로 추정되며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신불암의 옛 터라고 한다.

10) 사평 유물산포지**(**沙平 遺物散布地**)**[35]

조사대상구역에서 남쪽으로 약 **200** 떨어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 **156, 491** 전**,** **492**답 일원의 구릉 말단부와 모래들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재 유적 내부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 중이며 전면과 측면에는 마을과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1996**년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시 청동기시대 마제석기가 채집되었으며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된다.

11) 명곡고분군**(**椧谷古墳群**)**[36]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산 **44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명곡리 북서쪽에 말발굽모양으로 형성된 두개의 봉우리 중 남쪽에 해당한다. 현재 유적 내에서 수 많은 도굴갱

---

33)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34)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35)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36)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이 확인되는데, 파괴된 유구의 형상으로 볼 때 토광묘와 석곽묘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광묘는 구릉의 정상부와 남동쪽 사면, 석곽묘는 주로 북서쪽에 집중해 있다. 도굴갱 주변에는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12) 시명골요지(時鳴谷窯址)[37]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산 **6·7**번지 일원에 있는 명곡저수지의 북서변에 위치한다. 원래 대운산 기슭의 남사면에 분포했던 가마터지만 최근 명곡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유적의 대부분은 수몰된 상태이다. 유물은 주로 저수지 안의 수중과 분묘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백자종지, 백자 완 등이 주종을 이룬다. 유물의 품질 등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용기를 굽던 가마터로 추정된다.

13) 시명골 석조여래입상(時鳴谷 石造如來立像)[38]

시명골요지를 끼고 개설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시명사 경내에 위치하는 화강암제 여래입상이다. 주형광배를 지니며 불신에 비해 불두가 큰 편인데 마모된 얼굴은 최근 시멘트로 보강된 상태이다. 법의는 통견이며 가슴 위로 올린 왼손에 약합을 들고 있다. 대좌 밑에는 사방에 사천왕상이 조각된 방형 대석을 받치고 있는데, 원래 용도에서 전용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신체비례나 조각수법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4) 진등 유물산포지(진등 遺物散布地)[39]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 **55**번지 일원의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회야강이 북쪽으로 흐르며 구릉의 남·북 양측으로는 구릉을 따라 실개천이 흘러 회야강으로 유입된다. 현재 유적 내부는 밭과 축사, 과수원, 조경림, 임야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유물은 주로 경작지의 지표에서 무문토기편이 채집된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15) 신명 유물산포지(신명 遺物散布地)[40]

천성산 자락이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에 이르러 동쪽으로 길게 돌출된 설상대지에 위치한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저평한 구릉지로서 정상부는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

---

37)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38)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39)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40) 昌原大學校博物館·梁山市, 『梁山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어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경작지의 표토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가 채집되었다.

16) 솔밭골요지(솔밭골窯址)[41]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남쪽에 위치한 계곡 상류의 북동사면에 위치한 백자가마터이다. 현재 경작지와 분묘의 조성 등으로 파괴된 상태이지만 요벽, 요도구, 흑유자기편, 백자편 등이 구릉사면에 산재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용기를 굽던 가마터로 추정된다.

17) 평산리유적(平山里遺蹟)[42]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평산마을의 북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1996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 삼한시대 주거지 16동과 환호, 토광묘 1기 등이 조사되어 우리나라 환호취락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4. 조사내용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면적 42,653㎡)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이다. 울산-양산으로 흐르는 회야강의 서안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7번 국도, 서쪽으로는 소주 소류지, 북쪽으로는 세신아파트에서 서쪽 밭으로 진입하는 소로를 경계로 하는 지역으로, 千聖山(해발 922.2m)의 동쪽에서 뻗어 내린 해발 약 100~130m 정도의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조사구역 정상부와 능선 사면 일대는 깻잎, 고추 등의 계단식 경작지로 개간 중이며, 정상부는 한일 플라스틱 공장, 주변 일대는 아파트, 주택, 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 지역은 20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실시한 『문화유적분포지도-양산시-』 제작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고려시대 기와편, 청자편,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수습되어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형성된 생활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어 '백동 유물산포지'로 명명된 곳으로, 우리 연구원의 1차 지표조사 결과 유물은 주로 계단식 경작지의 표토에서 삼국시대 토기편,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채집되었으며 근·현대에 조성된 울산박씨, 전주 이씨 등의 문중묘 등이 남사면과 서사면 일대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한편 1차 조사가 끝난 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41)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42) 東亞大學校博物館, 『梁山平山里遺蹟』, 1998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추가 지표조사를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의뢰받았다. 추가 지표조사대상지역은 기존의 양산 백동유물산포지내에 위치하며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 지표조사결과 유물산포지 ①과 연접하는 구릉말단부로서 유구 및 유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상기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11월 24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양산시청 도로과에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문화유적분포지도』등의 열람을 거치지 않은 채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일부분이 삭평된 상태였으며 기존 도로 및 주택이 밀집하여 유구나 유물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상기 지역에 대한 1차 및 추가지표조사에서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 분묘군

사업구간내에 총 36기가 산재하는데 이 중 남·서사면에 33기가 집중 분포한다. 분묘의 관리상태 및 비문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근·현대에 조성된 분묘들로 판단되며 대표적인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분묘군① (중심TM좌표 : 35°24′21″N · 129°9′33″E)

조사구간내 해발고도 110~115m의 구릉 남동사면에 위치하며 직경 2~4m, 잔존높이 50~70cm의 분묘 4기가 상·하 2기씩 분포하는 가족묘이다. 비석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묘역과 봉분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최근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분묘군② (중심TM좌표 : 35°24′21″N · 129°9′30″E)

조사구간의 해발고도 117~122m에 해당하는 중앙부 남쪽 경계에 총 11기가 등고선의 유동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분포한다. 이 중 동→서 방향으로 3번째 분묘는 직경 2~3m, 잔존 높이 80~100cm 가량이며 비석이 있어 조성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984년 음력 5월 19일 울산 박씨와 그의 부인 전주 이씨를 후손들이 합장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2) 유물산포지

구릉 정상부와 남·서·동사면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자기편 등이 다량 채집되었으며, 북사면에서도 동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소량 채집되었다. 집중적으로 출토된 지점은 다음과 같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1) 유물산포지① **(**중심**TM**좌표 **: 35°24′21″N · 129°9′34″E)**

조사구간 남동단의 구릉 사면과 고추밭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기와편 등이 채집되었다. 구릉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며, 상부의 구릉 정상부가 비교적 평탄한 점을 감안할 때 구릉 정상부 및 사면 일대에 삼국시대~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입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2) 유물산포지② **(**중심**TM**좌표 **: 35°24′21″N · 129°9′31″E)**

조사구간의 구릉 정상부인 한일 플라스틱 공장의 동쪽에 해당하며 현재 고추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지표상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었다. 구릉 정상부가 비교적 평탄하다는 점에서 생활유구가 입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구릉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한일 플라스틱 공장부지 아래에도 유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상부의 경작지 중앙부에는 시기미상의 분묘 **1**기가 확인되었다.

(3) 유물산포지③ **(**중심**TM**좌표 **: 35°24′20″N · 129°9′22″E)**

조사구간의 남서쪽 구릉 정상부인 한일 플라스틱 공장과 남북자원촌의 서쪽 구릉 일대에 해당한다. 남쪽 구릉 아래에는 주택 · 견사가 위치하며,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유물산포지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조사단 의견

이상으로 '양산 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으로 동쪽에는 부산-울산간 **7**번 지방국도, 서쪽에는 소주 소류지, 남 · 북쪽의 구릉 사면 일대에는 주택과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천성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2004**년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자기편 · 기와편 등이 채집되어 학계에 '백동유물산포지'로 알려진 곳으로, 본 연구원의 금번의 지표조사 결과 구릉의 **3**개 지점에서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어 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존에 알려진 고려~조선시대보다 선행하는 삼국시대의 유구도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지표조사 시 확인된 **3**개 지점의 유물산포지를 참고할 때 **사업대상구간 중 구릉부(42,653㎡ -약 12,903평)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는 곳이므로 공사시행 전 반드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와 성격 파악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조사지역 내에 위치하는 근·현대 분묘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 이장 등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물산포지①이 위치하는 구릉말단부는 양산시청 도로과에서 실시한 정비공사에 의해 일부분이 삭평 및 파괴되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산시에서는 각종 공사의 인·허가시 『문화유적분포지도』등을 참고하여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예상되는 구릉부는 학술조사 이전에는 반드시 원형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에서도 공사시행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光海君日記』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慶尙道邑誌』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嶠南誌』(1937년, 大邱慶文堂 活字本)
『三國志』<魏書> 東夷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東亞大學校博物館,『伽耶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86.
東亞大學校博物館,「梁山新基里古墳群」,『考古歷史學誌』제7집, 1986.
梁山郡誌編纂委員會,『梁山郡誌』, 1986.
鄭澄元,「梁山地域의 古墳文化」,『韓國文化硏究』,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梁山郡·梁山文化院,『梁山의 文化遺蹟』, 1992.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1993.
국립중앙박물관,「양산다방패총 발굴조사보고」,『淸堂洞』, 1993.
慶尙南道,『慶南文化財』, 慶尙南道, 1995.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창원대학교박물관,『梁山市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1996.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강명환,『한국의 건축문화재7-경남편』, 기문당, 1999.
韓國精神文化硏究院,『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199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9-경남편Ⅱ』, 2000.
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1-총설』, 2002.
통도사성보박물관,『梁山의 歷史와 文化』, 2002.
慶南文化財硏究院,『京釜高速道路 擴張工事區間內遺蹟 發掘調査結果報告書』, 2004.
梁山市·通度寺聖寶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梁山市-』, 2004
東亞大學校博物館,『伽倻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86
東亞大學校博物館,『梁山平山里遺蹟』, 1998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圖版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 조사지역 위성사진 (출처 : Google Earth)



도판 2. 조사지역 전경(서→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3.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① 전경(남→북)



도판 4. 유물산포지① 채집유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5.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② 전경(동→서)



도판 6. 유물산포지② 채집유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7. 조사지역내 유물산포지③ 전경(서→동)



도판 8. 유물산포지③ 채집유물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9. 울산박씨・전주이씨 합장묘



도판 10. 조사지역 정상부 시기미상 분묘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1. 추가조사지역 세부 전경1(남→북)



도판 12. 추가조사지역 세부 전경2(북→남)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62輯

양산 소주지구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6년 11월 29일
발 행 일 / 2006년 11월 30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